

## 23기 아름다운 꿈같은 타이베이 해외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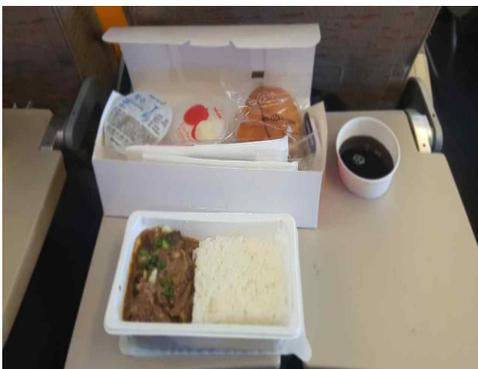
저에게 이번 해외탐방은 신청 때부터 아주 간절했습니다. 갑자기 잡힌 행사로 못 가게 되었던 상황이 생겨버려서 울상이 되어있던 모습에 다들 인수인계를 하고 갔다 오라는 커다란



배려에 저는 함께 데려가라는 작은 딸 덕분에 몰래몰래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미안> 10월30일 인천공항 7시까지 모임시간이라 지방의 특성에 저는 일을 마치자마자 29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첫 수학여행 가는 여고생처럼 설레임으로 날을 꼬박 세고 잠자는 것은 포기하고 새벽1시에 씻고 준비해서 출발을 해서 인천공항 C36번 앞에서 갔더니... 군경과에서는 혼자 참석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저만의 어색함을 먼저 온 언니들이 말도 걸어주고 사과도 주면서 어색함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은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여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진정한 포용적인 행복한 여행 겸 역사문화탐방이 될까 같다는 저의 두근거림을 진정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전날 저녁부터 굶었던 저는 기내식으로 나온 밥이 얼마나 맛있었게요. 불고기 비빔밥에 영화를 보면서 지루한 틈 없이 즐겁게 모두들 들떠있는 모습에 '다들 들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어떤 여행이 될 지 생각하는 자체도 저에게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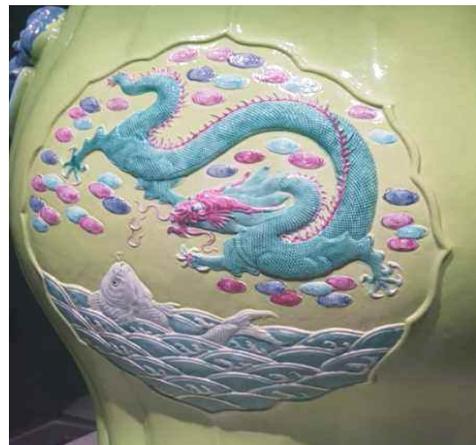
타이페이 도착한 우리를 편안하게 해 줄 2층 버스입니다. 대만은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이기에 25번의 태풍이 오며, 섬 지역이기에 갑자기 비가 오고, 지진도 자주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안전이 가장 먼저 이기에 버스도 1층은 짐 칸, 2층은 사람들 좌석 있으며, 만약 사고가 나면 나갈 수 있게 문도 5곳, 지붕에도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3박4일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버스가 그리기도 하네요.

<1일차- 충렬사 - 국립고궁박물관 - 스린야시장 >



부산에도 충렬사가 있는데 이곳에도 충렬사가 있다는 말에 어찌나 반갑던지요. 대만은 징용제에서 모병제로 바뀌면서 대만의 군인의 대한 예우도 다르며 전쟁에서 희생된 그들을 지키는 곳인 충렬사 우리의 현충원과 같은 곳이며, 그곳을 지키는 그들도 군인이며 우리가 갔을 시간이 임무 교대식을 하는 시간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보면 갈색 줄은 예전부터 그들의 임무 교대식을 하면서 생겨난 자국이라고 했습니다. 비가와도 어김없이 늘 하는 그들의 모습 내심 우리나라도 이곳처럼 군인들의 예우가 조금은 달라지길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일본하면 손 흔들거리는 고양이가 있다면 대만에서는 양옆에서 지키는 왼쪽에 있는 동물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들어오게 하고 나가는 것을 막아주게 해주는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쓰는 용과 자녀들이 쓰는 용은 발가락을 보면 5개가 있는 것은 왕이 쓰던 용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서태후가 쓰던 물건들은 화려하면서

특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보고나서 한국에 올 때까지 용을 보면 발가락 숫자를 세어 보는 버릇까지 생겨 버렸다는 후문이....



그 대만 카스테라가 아닌 엄청 부드러운 정말 입 안에서 스르르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 같은 카스테라 잇을 수가 없었습니다.

< 스린 야시장 >

저는 대만을 오면서 임무를 맞아서 왔기에 저만한 가방을 들고 왔었습니다.  
 “엄마 꼭 토토로 전등이랑 토토로 저금통 사와. 우리가 아빠 잘 지키고 있을께”  
 저의 12살 9살 두 따님의 미션이었습니다.  
 그곳에 갔으면 그곳의 먹거리를 꼭 먹어 보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 머리를 닮았다고 “석과”와 “망고”  
 대만의 진품 “대만 카스테라” 한국에서 알던



우리의 먼지만큼 남아있던 어색함을 23기 단합으로 완전히 무너트린 야식타임.  
 22살부터 우리 친정엄마 또래 던 언니오빠가 되어진 이 순간들... 교수님과 학생이 아닌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이 되었던 이 순간 정말 그리워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교수님께서 먼저 허물어 주시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지트까지 생겼던 것은 비밀!  
 23기만의 언어. “거기 모디!” 기억하나요.

<2일차 - 지우편 옛거리 - 스펀 소원천등날리기- 징안차오 흔들다리 - 장개석유물관 관람>  
 지우편 하면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만화의 배경이 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이쁜 그곳... 갑자기 내린 비로 잊지 못할 이쁜 추억들이 생겨나게 된 그 곳... 30원 비웃입고 신난다고 다닌 그랬던 그날... 너무나 그립게 남았던 2일날 이었죠.



우리가 알던 오카리나가 아닌 여러모양의 다양한 오카리나. 직접 하나하나 그리시던 장인의 연주까지 많은 비로 피로했던 우리의 감성을 알려주신 훌륭한 오카리나 할아버지.  
 작년에는 친정아빠가 올해 9월에는 시아버지께서 하늘로 여행을 가신 그리운 두분의 아빠들...

나의 그리움이 조금이라고 전달되길 바라며 그곳에서는 두 분이 오순도순 손잡고 아프시지 마시라고 전해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잘 전달이 되었겠죠.



이곳에는 아주 작은 버스정류소 같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죽은 사람이 사는 곳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해요. 부자 일수록 그 집도 넓고 크던 모습. 나라마다 풍습과 관습을 알아 갈 수록 신기했습니다.



<3일차- 금용천 해수욕장 - 야류해양공원 - 발마사지 - 서문정 거리미션 - 101랜드마크>



일본하면 온천이 유명 하지만 일본인들이 대만에 오면 온천을 간다고 합니다. 일본보다 더 좋은 온천 인가? 이곳은 해수온천 이면서 유황온천 이기에 노천탕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명 몸을 지켰습니다. 화장을 지우는 것은 신랑 외에는 이 날이 처음이고 여자들은 온천 하고 잘생긴 서울사이버대학교 오빠야 들은 물 배구를 하는 그 모습 멋있도다~~~~



온천을 했으니 공부를 하러 떠나야죠. 이날의 일정을 일명 약주고 병주고... 이날 걸은 것 만 18500보 였으니까요.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 행복 그 자체죠.

이곳은 파도가 치면서 돌 들이 여러 모양으로 유명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였답니다.

자~~ 병을 받았으니 약을 받으러 고고씽~~ 발 경락 마사지 받으면서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발 모양에 수 많은 숫자들... “아아” 하니까 마사지 해주시던 분이 “3번 장”이러면서 이야기 하시면서 결국 그분께 제일 많이들은 이야기는 “종합병원 T-T 남편 힘들다” 이 이야기 듣고 신랑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션타임~~~ 유명 평리수,망고빙수,곱창국수,여주쥬스,타이거슈거,85도씨 소금커피 까지 사는 것이였답니다.

파파고에 지도 앱까지 써가면서 전혀 통하지 않는 현지인들에게 물어서 찾아가기...

내가 앱을 잘 보지 않고 멀리까지 돌고 돌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해용...



쉽 없이 달려 간 101층 랜드마크... 백화점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98층까지 35초 만에 올라가 주시는 센스있는 엘리베이터. 그곳에서는 가만히 있어서 흔들흔들... 2.5지진도 느끼는 나로써 너무나 진땀이 나는 곳이었다.

그리고 101층 마스크트랑 사진 찍기... 101과 함께 마이쥬~~~~~ 외치기



이 민망함은 누구의 몫~~~ 나의 몫. 101층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산호들이 사라지면서 산호로 만든 왕관이 세상에서 하나 뿐 이라고 한다. 그 금액은 기본 몇 조 가 넘어가는 금액대가.... 신랑과 두 딸에게 사달라고 했다가 오지 말라는 소리 까지 들어야 했다는 후문이 있다.



<4일차 - 한국으로 고고싱~~>

여행은 어떤 사람과 떠나느냐 따라 행복한 그리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님 기억하기 싫은 여행이 되기도 한다. 이번 여행은 다들 아쉬워서 2일차에 비가 왔으니 하루 더 있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할 정도로 다들 너무나 좋은 사람들 이었다.

학과도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 틀리지만 마음은 같기에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이었다는 것은 공통점 이 되었다. 그래서 대만 23기.말이 필요하나! 모임을 만들면서 갔다 온 지 다들 하루하루 더 찼해지는 그날의 추억들을 그리워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서울사이버대학교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아직 해외탐방을 신청해보지 못한 학우님들이 계신다면 꼭 신청해 보라고 떠나보라고 적극 추천을 해 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난 이제야 알게 되었다.